

시대·인물별 유식학 총정리

■ 이만교수 '한국유식사상사'



'의연의 유식교학' 등 논문 16편 묶어 삼국~조선후기 유식사상사 소개

유식학을 처음으로 시대와 인물별로 정리한 이만 교수(동국대 불교학과)의 <한국유식사상사>(장경각)는 '한국유식사상사 총정리'라 할 수 있겠다.

이 교수가 15년 동안 고구려시대부터 백제, 신라, 고려 및 조선까지의 유식사상가와 전적들을 발굴·조사·정리한 이 책은, 우리 나라 불교사에 차지하는 유식학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연구 활성화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책에 나오는 유식사상가들을 보면, 고구려 의연선비와 백제 의연스님, 신라에서는 원숙, 원효, 경흥, 자장, 도종, 도륜, 태현스님 등 이미 알려져 있

는 유식 사상가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순분, 현룡, 영인, 지인, 신방, 순경, 승장, 의적, 행달, 명정, 현법스님 등의 행장과 사상 그리고 전적까지 깊이있게 고찰하고 있다. 고려 시대에서는 대각국사 의천스님과 수미스님, 조선시대에서는 최불암의 전적을 통하여 모든 법의 본성을 밝히는 법상의 교학사상을 조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지금까지 중국 스님으로 알려져 있던 순분, 현룡, 의인스님을 신라스님으로 새롭게 확인했으며, 그동안 알려져 있던 것으로 추측되었던 <성유식론>에 관한 신라 유식가들의 주석 내용들도 여러 전적에서 가려

뺏아 새롭게 정리했다. 이는 이 책이 이론 큰 성과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 유식교학의 효시로 추측되는 의연스님의 생애와 유식사상을 조명하고 있는 '고구려 의연의 유식교학'을 시작으로 '조선 후기 백파의 유식사상'까지 모두 16편으로 엮어진 이 책은,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은 삼국시대의 유식사상은 물론 고려, 조선시대까지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유식학뿐만 아니라 불교사상 연구에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부록으로 인명과 서명에 대한 용어 해설 사진을 곁들여 유식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준다.

이만 교수는 머리말에서 "유식학을 연구하면서 여러 연구서들을 접하던 중 <일본유식사상사>를 읽고, 내용 상당 부분이 우리 나라 유식사상가들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우리 나라에서 건너간 유식사상이 일본 학자들에 의해 정리되고 쓰여진 데 대해 자괴감을 느껴 <대정신수대장경>을 토대로 이 책을 펴내게 됐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값 2만5천원.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화엄·유식·법화사상, 이는 우리 나라 불교학사의 큰 맥을 형성해 온 사상이다. 그러나 유식은 화엄이나 법화에 비해 연구가 미진했던 것이 저간의 현실이다. 특히 사상사적 측면에서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그렇다고 우리 나라 불교사에 있어 유식에 대한 사상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구려의 의연선비와 신라의 원광, 원효, 자장스님 등이 중국 유학을 한 후 많은 스님들이 유식학을 연구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나라 불교사상사의 정수인

'한글 원각경' 나왔다

원순스님 번역
함허 득통스님(1376~1433)의 <원각경소>가 승가대학(장원)에서 교재로 사용된 지 20년만에 처음으로 우리말로 번역 출간됐다.

신간 <한글 원각경>(법공양)은 원순스님이 승공사 학인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한글세대에 맞게 경의 원문을 현대화하고 번역했다. 이 책의 특징은 누구나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해 가면서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원문을 번역하고 그에 맞게 토를 달았다는 것이다.

승가대학에서 <화엄경>을 배우기 전에 보아야 하는 필수 과목인 이 경은, 열 두 보살이 원각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절차를 묻고 부처님께서 답변한 소중한 경전이다. 하지만 공덕찬(功德讚)이 없는 탓에 <법화경>이나 <금강경>처럼 애송되지 못했다. 이미 함허스님이 700여 년 전에 <원각경>을 풀이해 원각의 진면목을 드러냈으나, 한문 문장이어서 승가에서만 읽혀졌을 뿐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출간된 <한글 원각경>은 한문의 벽을 넘지 못한 불자들에게 주는 선물이자 원각의 대의를 널리 알리는 또 다른 시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역자 원순스님은 "화엄경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이 경전의 가르침은, 큰마음으로 수행하여 무상한 세상의 실체를 보는 것이다"며 "모두 다 이 원각의 인연으로 세상의 다름 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부처님의 세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간된 <한글 원각경>은 82년 해인출판사에서 발행한 <원각경 합해>를 저본으로 하여 번역했다. 값 2만5천원.

김종근 기자

마이산 탐사의 숨은 이야기

진현종씨 '한국의 불가사의'
자연의 절경과 인공의 기경이 어우러진 마이산 탐사에 얽힌 이야기를 낱낱이 드러낸 <한국의 불가사의 마이산 탐사>(은행나무)가 나왔다. 탐사의 돌담 축조자를 놓고 이견이 분분했던 것이 이 책의 출간 배경이다. 때문에 이 책은 탐사의 돌담 조성과 얽힌 일화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돌담 축조자로 알려진 이갑룡 처사에 대한 일화가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갑룡 처사가 돌담을 어떤 방법으로 축조했는지, 또 그에 얽힌 이야기 등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진현종씨가 엮은 이 책은 신비한 마이산에 얽힌 이야기 산 탐사의 영험, 마이산과 산 주변의 명소 등을 사진과 함께 수록하고 있다. 특히 해명스님이 공개하는 '돌담을 쌓는 비법'은 눈여겨 볼만하다.

'불교학개론' 개정판 동국대출판부 15년만에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과 동국대 학생들의 불교교양 입문서로 널리 읽혀왔던 <불교학개론>이 15년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됐다.

동국대 출판부는 기존의 작은 활자체를 크게 변형하고, 국한문 혼용에서 전면 한글로 편집한 개정판 <불교학개론>을 내놓았다. 이 책은 척박한 불교 전문출판계에서 역사적, 교리적 측면에서 불교를 고찰한 양서로서, 그동안 소리 없이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 해왔다. 부처님의 생애에서부터 근본교설, 대승불교, 교단의 형성과 생활, 불교와 현대사회의 등 불교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는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값 8천원.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영어로 읽는 '한국불교의 천태사상'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최근 선·화엄사상과 함께 한국불교의 중심 철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천태사상을 조명할 영문판 <한국불교의 천태사상·Caontae Thought in Korean Buddhism>을 발간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천태사상의 수용과 전개 그리고 발전을 다룬 이 책에는, '삼국시대의 <묘법연화경>에 대한 이해와 믿음'(김영태), '묘법연화경'에 근거한 원효 스님의 사상'(이기영), '고려 초기 천태학과 그 역사적 의미'(김상현), '천태종의 형성과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재창) 등 모두 13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10여 년 전부터 영문판 '한국불교사상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 동국대는 이어 영문판 <한국불교의 미래사상>을 2001년에 발간할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불교와 과학 한뿌리에서..." "과학은 불교의 부분집합"

김성규 교수 '불교속의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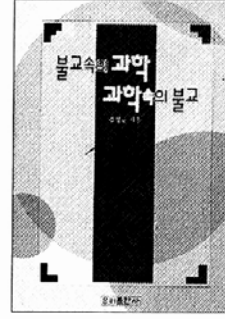
과학과 불교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는 김성규 교수(영남대 의과대)가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우리출판사)를 내놓았다.

이 책에서 김 교수는 "엄밀히 말하면 과학은 '불교의 부분집합'이다"고 말한다. 집을 지을 경우, 과학적인 방법이 기초는 기초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부분적으로 전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면, 불교적인 방법은 한번에 집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즉 어떤 명제에 도달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은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결론에 도달하지만, 불교적인 방법은 상황을 종합함으로써 분석적인 물음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불교와 과학의 근본 뿌리는 같다고 보고 있다. 뉴턴의 만유인력,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불교의 화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뉴턴의 화두는 '왜 모든 물체는 밑으로만 떨어지는가'인데, 이것은 '왜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죽어야 하는가' 하는 화두와 같은 뿌리라는 것이다. 또 과학이 벽을 허무는 작업이라면, 불교는 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라고 보고 있는 김 교수는, 구멍을 뚫고 나면 그 구멍을 통하여 자신과 우주는 하나가 된다고 말한다. 결국은 과학과 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불교는 과학이다'는 시각에서 쓴 이 책은 '깨달음과 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시작으로 '슈뢰딩거의 고양이와 불교적 깨달음', '양자역학과 불교', '양자론 그 에너지 다발의 화두', '불확정성 원리(1·2)' 등을 통해 물질과 정신 즉 과학과 불교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글쓴이는 머리말에서 "불교와 과학의 터널은 오늘날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빈곤으로 인한 세계 문화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서구 문명의 한계 속에서 새로운 인식의 물질을 창출할 수 있는 서막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다양한 과학적 접목이 인식의 폭을 넓힐 것이다"고 밝혔다. 값 7천원.



김종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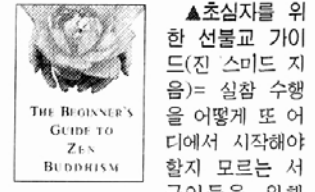
김종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책방 역시아른 집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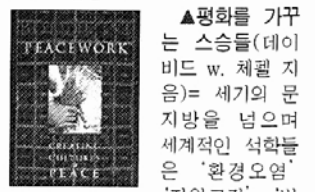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김용욱 선생, 그건 아니었습니다	변상섭	시공사
2	민중-허버트에서 회개사까지	현각	열림원
3	산방일기	지하	여시아문
4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	휴림
5	적멸의 즐거움	정추우	우리
6	지장신왕 지장기도법	김현준	효림
7	금강경강해	김용욱	통나무
8	부처님께 재를 털면	스티븐 미켈	여시아문
9	거지성자	전재성	선재
10	오두막 편지	법정	이레

도서 안내:(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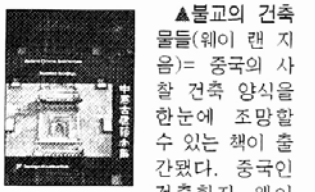
책의신간



▲초심자를 위한 선풍교 가이드(진 스미드 지음)= 실참 수행을 어떻게 또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서구인들을 위해 미국인 법사 진 스미드(Jean Smith)가 <초심자를 위한 선풍교 가이드>(The Beginner's Guide to Zen Buddhism)를 발간했다. 이 책은 선풍교의 시작과 역사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선사들의 수행담 뿐 아니라, 실참 수행을 시작하는 초심자들이 궁금해하는 자세와 옷차림 그리고 선풍교까지 망라하고 있다. Bell Tower 발간. ISBN 0609804669



▲평화를 가꾸는 스승들(데이비드 w. 체펠 지음)= 세기의 문지방을 넘어며 세계적 석학들은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 부각된 '전쟁위험', '윤리회복' 등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이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데이비드 w. 체펠(David W. Chappell)의 <평화를 가꾸는 스승들>(Buddhist Peacework-Creating Cultures of Peace)은 이러한 당부에 대한 불교의 회답이다. Wisdom Publications 발간. ISBN 086171167X

▲불교의 건축물들(웨이 램 지음)= 중국의 사찰 건축 양식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 중국인 건축학자 웨이 램(Wei Ran)이 내놓은 <불교의 건축물들>(Buddhist Buildings)이 바로 그것. 중국 고건축 시리즈의 하나로 펴낸 이 책은, 인도의 사원 양식이 중국으로 건너와 이곳의 건축 양식과 습합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중국 특유의 사찰 양식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Springer Verlag Vienna 간행. ISBN 321183009X

▲서양의 참여 불교(크리스토퍼 린 지음)= 서양 불교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인 참여불교운동에 대해 궁금한 불자가 있다면 <서양의 참여불교>(Engaged Buddhism in the West)야말로 반가운 책일 것이다. 60년대 이후 30여 년간의 미국 참여불교 운동사를 밀착 조명하는 이 책은, 미국 참여불교의 '역사' 인물 '교리' 등을 소개하고 있다.

Wisdom Publications 간행 ISBN 0861711599

【 불교이해의 새 저서 】 한국 불교사에 처음으로 반야심경의 핵심을 밝혀낸 역자!

(원문:프라즈나야 파라미타 흐리다야 수트라)

한국 최초의 반야심경 원문 해설서 !!!

한국 불교사에 기록될 기념비적 업적 !!!

2,500여년 전 위대한 스승 고오타마가 제시해 준 그 올바른 깨달음의 열쇠!

반야심경에는 중요한 핵심과 비밀이 있다. 그 핵심과 비밀을 한국 불교사에 처음으로 밝히는 다섯개의 짧은 만트라(주문) "가테가테 파아라가테 파아상가테 보디 스바야하야" 그 핵심과 비밀을 이 책 안에서 만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깨어날 수 있다.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바다에서 고기를 잡든, 농사일을 하든 유식, 무식,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든 그것과는 깨어나는 데 아무 관계가 없다. 누구나 마음만 먹고 행하면 가능한 일이 이 일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시며 미국 휴즈사에서 21년간 원로 과학자로 지낸 김사철 박사와 한국불교연구원의 황경환 연구위원이 함께 한 반야심경의 새로운 세계! 실험과 증명의 과학적 접근을 통해 누구나 깨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한국불교연구원 (02)3411-6167~8 / 값 7,500원

반야심경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을까?”

깨달음의 열쇠